

두 가지 번역 원칙: 문화의 옷 벗겨내기과 저자의 신학 살려내기

김동수*

1. 들어가는 말

20세기의 성서 번역은 성서 번역학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 시기 성서 번역자들은 나이다(Eugene Albert Nida)의 이론을 비롯한 성서 번역 이론의 토대 위에서 성서를 새롭게 번역할 수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번역을 위해서는 아마도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번역 이론의 등장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이 글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대한 번역 이론을 제시하는 것도, 새로운 독자층에 대한 여러 측면의 분석도 아니다. 번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인 번역이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 번역자의 저자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실제 번역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번역자를 선택할 때 번역 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 글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개괄하고 어떤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글은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간단히 예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글의 목적은 차후에 이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자들에게 문제 제기로 자리매김 하려는 것이고, 또 새로운 번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개역개정』 성서의 신약 본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문화와 번역의 문제이다. 번역은 문화의 옷을 입게 마련이다. 번역자와 독자는 특정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는 번역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번역이 단어들만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에서 단순히 옮겨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나 문장은 실제 번역된 단어나 문장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번역에 있어서 그 동안 강조했던 점은 이 점일 것이다. 그런데 번역자의 문화가 알게 모르게 본래의 본문 내용을 왜곡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본 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려

* 평택대학교 교수, 신약학.

고 한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나는 ‘왜곡된 문화의 옷 벗겨내기’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 두 번째 관심을 갖는 것은 번역에 있어 기초적인 문제이다. 번역자는 저자의 사상에 정통해야 원문을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개역개정』을 예로 들면 번역자가 성서 저자의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점들을 잘못 번역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된다.

2. 문화의 옷 벗겨내기

우리말 번역에는 사상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우리 문화 기저에 있는 유교와 샤머니즘이 번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된 측면이 더 많다. 그래서 유교의 서열주의는 성서 본문 자체에 있는 평등의 비전을 왜곡되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문화가 저자의 의도를 삼켜버려 성서 본문 자체에는 없는 것인데, 문화의 옷을 입고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2.1.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행 2:42)

한국의 기독교 문화에는 목사 중심주의가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다. 이것은 아마도 유교의 서열의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 문화가 성서 번역에도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도행전 2:42를 들 수 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이 번역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나머지 뒤에 나오는 행위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헬라어 원문에서 분사로 쓰인 προσκατεροῦντες라는 단어가 1) 가르침, 2) 교제, 3) 떡을 떼, 4) 기도에 병렬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1)이 2) 3) 4)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전념한 것은 네 가지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1)이 나머지를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주석에서는 그렇게 해설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번역에서는 최대한 저자의 말을 그대로 놓아두고, 해석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할 것이다. 또 『개역개정』 본문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서는 “오로지 힘쓰다”라는 분사가 기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번역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음식을 나누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

습니다.”

여러 언어권에서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위의 나의 제안과 같은 번역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개역개정』에는 이러한 번역이 탄생했다.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번역자가 이 구절에서 문법을 잘못 분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문법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번역은 목사중심주의라는 우리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우리 교회 문화에서 목사가 사도의 직분을 일정 부분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신자들의 교제와 음식을 나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목사가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번역이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번역은 성직자주의를 만들고, 이른바 평신도 사역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 이 번역은 본래 성서 저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 번역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직자 중심주의의 옷을 벗겨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2.2. 효를 행하여?(딤후 5:4)

본 구절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효(孝)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곳이다. 사실 서양의 주요 언어들에서나 성서 원어들(히브리어, 헬라어)에서 한자의 효(孝)에 해당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는 중국어식으로 *xiao* 라고 쓰거나 혹은 한국어식으로 *hyo*라고 표기한다. 이것을 억지로 풀어서 영어로 표현하면 *filial piety*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 우리말로 “효를 행하여”라고 번역한 것이 나온다. 이것은 물론 문화적인 번역이다. 최근의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문화적으로 적절한 번역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효를 행하여”는 헬라어 *εὐσεβέω*라는 동사의 번역이다. 이 단어는 동사형으로는 이곳과 사도행전 17:23에만 나온다.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는 “알지 못하는 신”을 목적어로 하는 동사로써 “위하는”이라고 번역되었다. 그 뜻은 예배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이것을 “예배하다”(worship)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용례로 볼 때 이 단어는 종교 영역에서 주로 쓰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의 명사형인 *εὐσεβεια*는 신약 성서에서 신성, 종교, 경건 등의 뜻으로 쓰인다. 본래 이 단어는 위와 같이 동사형으로 예배 행위에 대해서 쓰이고, 명사형으로 신의 성품을 가리키는 데 쓰이고(딤후 2:2; 3:16), 나아가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도 쓰인다(행 3:12; 10:2).

그런데 디모데전서 5:4에서 *εὐσεβέω*는 부모 공경과 관련하여 쓰였다. 그래

서 번역자는 자녀나 손자가 부모에게 할 도리를 말한 이것을 우리 문화에 맞게 “효를 행하여”로 번역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쓰인 본래 동사의 뜻이 직접적으로 “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고찰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든지, 하나님의 성품이든지, 혹은 그것에서 기원한 사람의 성품을 의미한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본에서 이것을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다”(NRSV; NIV) 혹은 “경건을 보여주다”(KJV)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런 번역의 영향을 받아 『공동번역』과 『새번역』도 각각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일”과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말로 “종교적 의무를 다하다”라는 표현은 부모에게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영어의 “religious duty”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교/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신앙심(piety)을 의미한다. 일반 종교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놓았을 때 독자들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효를 행하여” 혹은 “효성을 다하는 일”(새번역, 1973 정확한 출처?)은 오히려 문맥에서, 또 문화적으로 그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디모데전서 저자가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효를 다하여”라는 번역은 이러한 윤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이 단어의 보편적 의미인 “경건의 행위를 하다”로 번역하든지 혹은 “신앙의 의무를 행하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행위의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은 문맥에 잘 맞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하면 “경건에 합당한 행위를 하다”로 번역해도 좋을 것이고, 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신앙심에 합당한 행위를 하다”로 번역해도 좋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효”로 번역할 때 성서 문화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래 동양에서 효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충(忠)과 함께 흔히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어 왔다. 부모에게 대한 무조건적 순종에서, 정치가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해 왔다. 또 효는 부모에게 대한 의무를 표현하는 말로만 쓰이지, 역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어떤 행동과 연관하여 쓰일 수 없다. 하지만, 신약성서에서 부모에게 하는 행위로서 흔히 쓰이는 ‘공경하다(τιμάω)’라는 동사는 부모에 대해서도 쓰이지만(엡 6:2; 마 15:4),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행위에도 쓰인다(요 12:26). 또 명사형(τιμή)으로 이것은 하나

님의 약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도 쓰인다(고전 12:23, 24). 이런 의미에서 효라는 단어는 성서의 부모자녀 관계를 담는 언어로 제한성이 있다.

2.3. 주 안에서 ... 순종하라(엡 6:1)

본 구절에서 문제되는 것은 번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장에 대한 이해의 문제다. 여기서 많은 독자는 “주 안에서”라는 어구가 “순종하라”를 한정한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주 안에서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해한다. 다시 말해 부모가 하는 명령이 성경적인 한에서 순종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맥에서 보면 이 어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5:21), “주께 하듯”(5:22), 혹은 “그리스도께 하듯”(6:5)이라는 어구들과 상응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어구는 순종하라는 것을 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순종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것이다. 또 본문비평적으로 볼 때, 많은 신약학자들은 “주 안에서”가 원본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독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를 피하고, 또 본문비평적으로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이것을 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하지만 다수의 사본에 이것이 있는 것에 따라, 이것을 넣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진다면, “주 안에서”보다는 “주께 하듯”이 더 문맥에 맞는 번역일 것이다.

이 문제는 독자가 “주 안에서”가 “순종하라”를 제한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명령 중에 이상승배나 비기독교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원칙을 성서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은 성서 전반에서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문 에베소서 6:1에서 저자가 그것을 의도한 것인가를 질문해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크리스천은 십계명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지, 부모의 말에 제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 구절을 우리 독자들이 우리 문화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번역자는 이것을 고려하여 번역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3. 성서 저자의 신학 살리기

현대 저서의 번역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역자가 저자의 사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역자는 단순히 원저자의 언어와 독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역자는 저자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좋은 번역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신약성서에 한정해서 말하면, 신약성서 각 권을 번역하기 위해서 역자는 저자의 사상과 어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번역이 『개역개정』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3.1. 그 당할 일?(요 18:4);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공유하는 자료가 매우 적다. 있다 해도 에피소드 몇 개에 불과하다(요 2:13-22; 6:1-21; 12:1-8). 그런데 수난사화에 있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전체적인 스토리와 내용이 일치한다. 하지만, 수난사화에서 예수에 대한 상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의 수난사화에서 예수는 고난 받는 종 메시아로 그려져 있다면, 요한복음 수난사화(요 18-19장)에서 예수는 신적 혹은 왕적 메시아로 묘사되어 있다. 또 수난의 의미도 고난이나 고통이기보다는 영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수난사화에서 예수는 수난을 당한다기보다는 죽음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위와 같은 신학을 이해하고 요한복음 수난사화를 번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을 고려하지 않고 번역한 것이 몇 군데에서 보인다. 요한복음 18:4에 보면 εἰδὼς πάντα τὰ ἐρχόμενα ἐπ' αὐτὸν이라는 어구가 있는데 『개역개정』에서 이것을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고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당할”이라는 말은 수동적이지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폭력을 당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는 자신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번역은 “당할”이라기보다는 “닥칠”이 적절하다. 또 “그에게”라는 말도 여기에서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번역하면 이렇다: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을 아시고.”

요한복음의 수난사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번역 중의 하나는 예수의 죽음을 표현한 19:30의 번역이다. “τετέλεσται, καὶ κλίνας τὴν κεφαλὴν παρέδωκεν τὸ πνεῦμα …”(30b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παρέδωκεν τὸ πνεῦμα이다. 여기서 τὸ πνεῦμα를 성령으로 이해하여 “그는 성령을 건네주셨다”고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예수]의 영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παρέδωκεν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 것인가가 남는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건네주다, 넘

겨주다”이다. 어떤 물질이나 힘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때 이 단어는 흔히 사용된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유다의 행동에도 쓰이고, 빌라도의 예수에 대한 행동에도 쓰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건네줄 때도 쓰인다(18:30, 35, 36; 19:16).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쓰일 때는 어떤 뜻일까? 예수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예수의 죽음을 표현할 때 마가는 예수가 마지막 숨을 쉬신 것으로 표현하는 반면(막 15:37), 마태와 누가와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내 놓으신 것(마 27:50), 맡긴 것(눅 23:46), 혹은 건네준 것(요)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요한복음 수난사회에서 예수가 신적 메시아로 왕적 메시아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죽음을 수동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관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 자신이 영혼을 하나님께 건네주신 것이다. 이것은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신 것을 의미한다. “숨을 거두셨다.”(표준새번역), 혹은,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개역), 혹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개역개정)라는 번역은 모두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구절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요한의 신학이 배어 있는 것이다. 왕적 메시아 혹은 신적 메시아의 입장에서 이 어구를 번역하면 이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건네주셨다(혹은 위임하셨다).”

3.2. 다른 언어들로?(행 2:4)

사도행전 2:4에서 전통적인 번역이 “방언”이라고 했던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언어들”이라고 번역했다. 최근의 주요 번역 중에서 이러한 방식을 취해서 NRSV에서도 이것을 languages로 번역하고 있다. 물론, 비교적 최근의 다른 여러 번역본에서도 이러한 번역을 취하고 있기는 하다(N. E. B.; Philips Modern English; Today’s English Version). 아마도 문구 그 자체보다도 상황적 일치를 표현하기 위해 이것을 방언이 아닌 “언어”로 표현한 것 같다. 헬라이어 문구로는 “방언”이지만 독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실제 언어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은 누가가 이 어구(λαλεῖν ἑτέροις γλώσσαις)를 사용하여 하나의 일치된 방언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누가는 “[다른] 방언을 말하다”라는 위 어구를 사도행전 2:4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후에 10:46과 19:6에서 이것을 계속 사용해서 거기에서의 체험이 오순절에서의 예루살렘에서의 체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어구가 외국어를 나타낸다는 뉘앙스가 전혀 없다. 누가는 오순절 방언 체험을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 보며, 그것은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ἑτέρας γλώσσαις*을 “다른 언어들”로 번역하면 누가가 의도한 그러한 연관성을 독자가 찾아내기 어렵게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사도행전 2:4에서 *λαλεῖν ἑτέρας γλώσσαις*가 반드시 실제 언어를 의미한다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 언어라고 보지만, 또한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서 기적은 말하는 사람 편에서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꼭 실제 외국어(*xenolalia*)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듣는 언어의 기적(*akolalia*)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에서 번역은 해석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주석가들에게 넘기고, 번역 언어 자체를 그대로 놓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번역을 “언어”가 아닌 “방언”으로 되돌리기를 제안한다.

3.3.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

바울은 고린도전서 12-14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은사가 현시되는 목적을 12:7에서 분명하게 밝힌다. 그것은 헬라어 문구로 표현하면 “πρὸς τὸ συμφέρον”이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지만(J. B.), 대부분의 현대 번역에서 이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συν*이라는 접두어는 *σύν*이라는 전치사에서 온 것으로 “같이, 함께”라는 뜻이다. 그래서 *συνφέρον*은 단순한 선함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단순히 어원에 대한 분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면 고린도교회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그 때 바울의 해결책은 그 은사는 개별 신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단순한 유익함, 혹은 선함이라고 번역하면 바울의 이러한 사상을 잘 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본문은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 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4. 나가는 말

이 글에서 나는 새로운 번역을 위한 지침 중 하나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함을 제안했다. 첫째, 번역과 문화에 대한 문제로, 어떤 번역은 문화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 독자가 번역을 그 언어 자체로만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문화화 되어 본문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았다. 또, 번역의 기초 원칙 중 하나인, 본문을 저자의 사상과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몇몇 구절들을 사례로 들었다. 앞으로 나올 새 번역에서는 여러 번역의 원칙들과 함께 내가 제시한 이 원칙들이 성서의 다양한 구절들에 적용되어 보다 향상된 번역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투고 일자: 2012. 10. 16.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1.)